

# OECD 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

엄 진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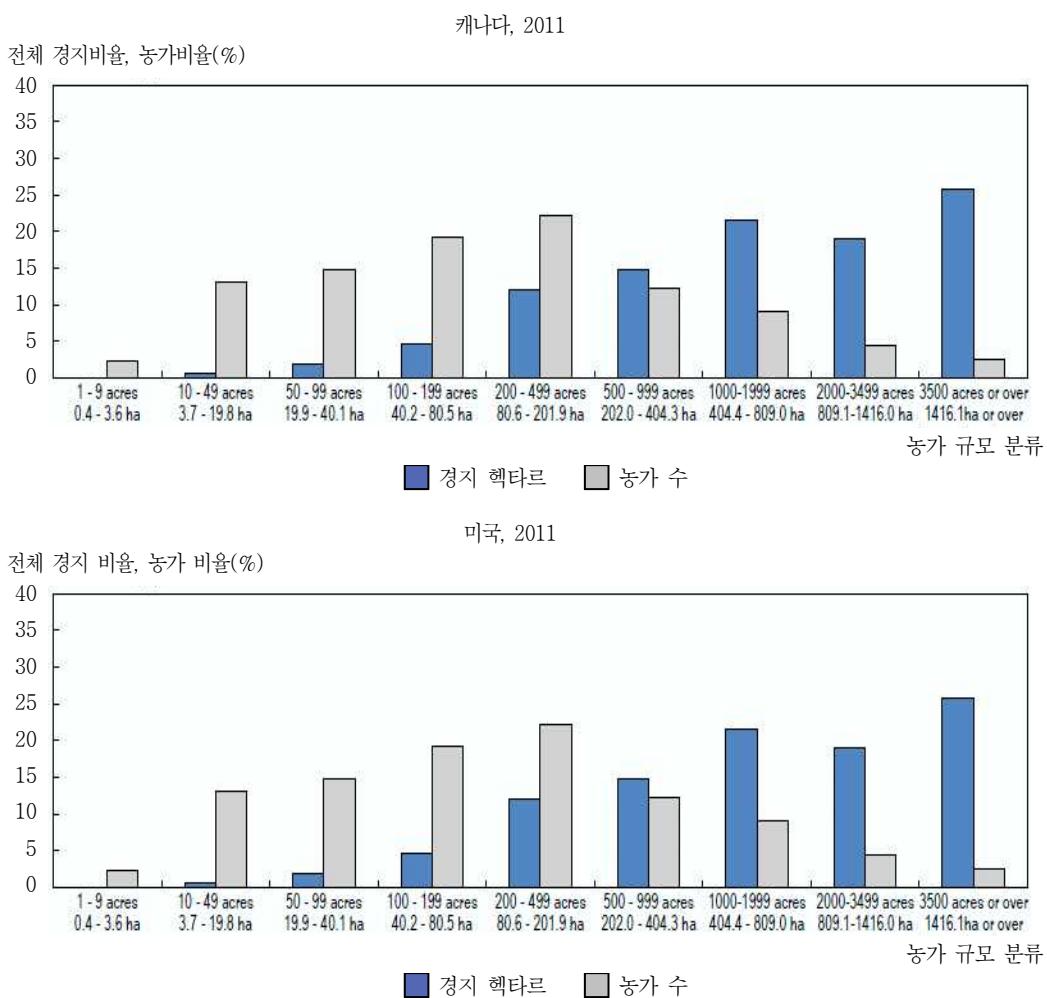
농촌의 인구, 특히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농가의 수는 지난 20여 년 간 감소하였다. 산업화·도시화와 맞물려 농촌인구,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의 차이만 있을 뿐 OECD 국가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농가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가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동절약형 기술개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농가는 규모를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농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편향된 (skewed) 농가 규모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농업 구조에서 대규모 농가가 존재하지만,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jeom@krei.re.kr). 본고는 OECD에서 2016년에 발간한 R. Bokusheva & S. Kimura의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그림 1 캐나다와 미국의 농가 수와 규모 분포도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8

이러한 농업의 이중적 구조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즉, 대규모 토지 소유와 기술개발, 임금근로자 고용을 기반으로 대규모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농업의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산술 평균으로 농가 규모를 측정하고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가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농가 규모 변화와 농업 구조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발표된 OECD의 농가 규모 분포도 측정 방법 관련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해 살

---

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올해 발간된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2. 농가 규모 측정 방법

### 2.1. 기존 측정 방법의 한계

농가 규모를 측정하는 데 흔히 쓰였던 지표는 산술 평균이었다. 산술 평균에 더하여 중위수를 보완적으로 함께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분포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을 가질 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 그러나 왜도(skewness)가 심한 분포에서의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정보를 왜곡시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전체 관찰수와 농가 인구의 정의에 따라 값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또한 각 국의 농가 규모를 비교할 때, 농가 규모의 최저 임계점(minimum threshold)에 적용되는 평균 농가 규모를 평균과 중위수만으로 일관된 비교를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존재하는 경우, 한 나라 안에서도 농가 규모의 기간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농업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단순한 산술 평균과 중위수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로 인해 농가의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산술 평균과 중위수로 시간에 따른 농가 규모 변화와 각 국 간 농가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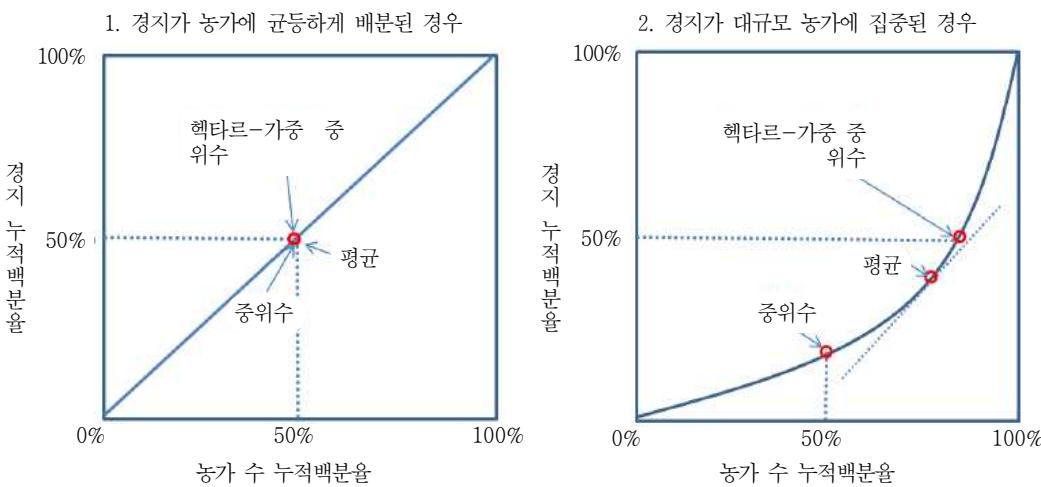
### 2.2. 새로운 측정 방법 논의

#### 2.2.1. 농가 규모 분포 측정

Lund and Price(1998)와 MacDonald et al.(2013)은 농가 규모 측정에 있어서 간단한 측정 방법인 헥타르-가중 중위수(hectare-weighted median)를 제안하였다(Bokushova and Kimura, 2016).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 방법은 농가 규모 분포를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눈다. 가중-헥타르 중위수 경지보다 많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 50%와 헥타르-가중 중위수 경지보다 적은 토지를 경작하는 나머지 농가 50%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헥타르-가중 중위수를 이용하면 토지사용 집중 정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로렌즈 곡선(Lorenz curve)을 통해 기존의 측정방법과 �ект아르-가중 중위수 측정방법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첫 번째 그림은 농지가 각 농가에 균등하게 분포된 경우를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림은 농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농가 수의 누적 백분율을, 수직축은 �ект아르(hectare)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낸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농지가 균등하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평균과 중위수, 그리고 �ект아르-가중 중위수는 서로 같은 지점에 놓인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농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농지의 50%이상이 평균보다 규모가 큰 농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로렌즈 곡선을 이용한 평균 농가 규모 측정 방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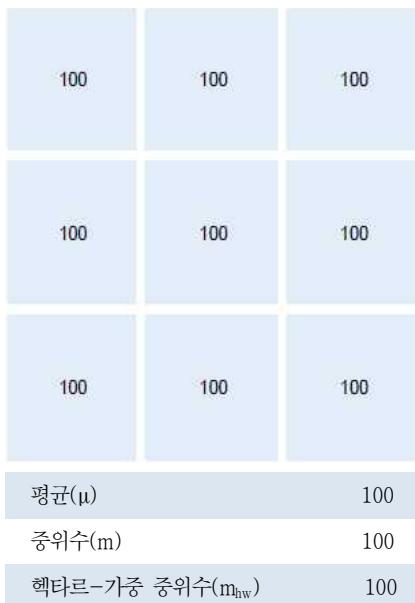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11.

<그림 3>은 또 다른 예로, 농가 규모 분포에 왜도가 존재할 경우, 산술 평균, 중위수, �ект아르-가중 중위수가 농가 규모 통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준다. <그림 3>에서 왼쪽 그림은 각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균등한 경우이다. 이때는 산술 평균과 중위수, �ект아르-가중 중위수가 같다. 그러나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처럼 농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경우, �ект아르-가중 중위수는 산술 평균, 중위수보다 크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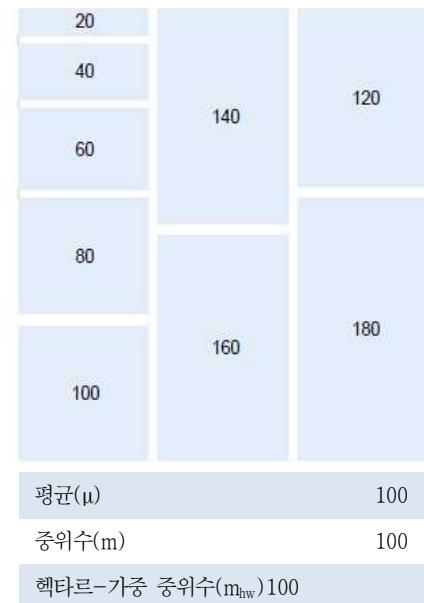
1) 물론 <그림 3>에서는 �ект아르-가중 중위수는 산술 평균, 중위수와 같은 값임. 그러나 보통의 경우 토지가 일부 농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가중-헥타르 중위수는 산술 평균, 중위수보다 높은 값을 가짐.

그림 3 평균 농가 규모 측정 방법에 농지 분포가 미치는 영향

1. 경지가 농가에 균등하게 배분된 경우



2. 경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경우



자료:Boukusbeva and Kimura, 2016:11.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을 이용하여 농가 규모를 측정하면 농가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상 평균값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위수 역시 중간지점에 있는 농가의 규모가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대규모 농가에 농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헥타르-가중 중위수는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적으로 적은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값의 변동이 작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농가 인구 정의의 차이에 따른 측정값의 변동은 헥타르-가중 중위수보다 평균과 중위수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에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첫째, 이 측정방법에서는 농가의 합병(merging), 분화(fragmentation)와 같은 특정한 유형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헥타르-가중 중위수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두 농가가 합병했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헥타르-가중 중위수 보다 작다면 전체적인 헥타르-가중 중위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헥타르-가중 중위수 보다 상위에 있는 두 농가의 합병 또는 분화 과정도 헥타르-가중 중위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OECD 국가의 농가 규모 변화과정 비교를 이끌어 내려면 보완적으로 농가규모·가중 분위 통계와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 방법은 농가수와 농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농가 수와 농지 이외에도 농가 규모는 다른 기준과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가 규모를 농업 생산량 또는 투입재로 측정할 수 있으며, 단위로는 화폐 단위 또는 물질적 양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농업 생산량 기준으로 농가 규모를 측정할 경우, 매년 측정값의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입재 기준으로 농가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또한 화폐단위보다는 물리적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동요인에 덜 민감하고, 시간에 따른 국가별 농가 규모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투입재 기준 농가 규모 측정 예로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노동 요구 지수(Standard Labor Requirement Indicator)”를 들 수 있다. 농가의 연간 표준 노동 요구 지수는 각각 다른 작물 면적과 각각의 다른 가축 수에 적절한 표준 노동 요구 계수를 곱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전체 연간 노동 요구 시간을 상용근로자의 숫자로 전환하여 나타낸 것이 표준 노동 요구 지수이다. 이러한 지수는 상대적으로 산출물의 가격 변동보다 생산에 있어 필요한 노동력의 변동 폭이 작으므로, 농가 규모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

### 2.2.2. 농가 인구와 변수의 정의

각 국의 농가 규모를 비교할 때 농가의 범위와 농가 인구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4종류의 주요 농가 — 작물, 낙농, 소, 돼지 농가 — 를 중심으로 농가 규모를 비교한다. 한 가지 이상의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소득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작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만약 한 농가가 작물과 낙농을 동시에 산출하는데, 대부분의 소득액(산출물)이 작물에서 발생한다면, 작물 농가로 분류한다.

농촌 관련 통계에서 농가 인구에 대한 정의는 농지 또는 농업총생산액(gross agricultural output)의 최소 규모 기준선(minimum size threshold)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각 국에서의 정하는 농지 또는 농업총생산액의 최소 기준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EU국가와 북미 또는 아시아 국가를 비교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U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미 또는 아시아 국가들보다 최소 농가 규모 기준선이 높아, 대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농가 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농가

---

인구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농가 규모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OECD 각 국의 농가 규모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서로 다른 농가 인구의 정의와 농가 범위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모든 농가 규모 측정에는 경지와 농업총생산액의 헥타르를 사용하고, 낙농, 소, 돼지 농가 규모 측정은 표준 가축단위(standard livestock units)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표를 사용한다. 총 14개국 —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 대상으로 농가 규모를 비교하였다. 각 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기본적인 분석 시점은 1995년부터 2010년이다.

이와 관련된 통계는 총 조사로 이뤄진 곳은 총 9개 국 —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고, 표본조사로 이뤄진 곳은 나머지 5개국 —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웨덴, 아일랜드 —이다. 참고로 총 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에 따라 최소 농가 규모 기준선이 달라지고 표본채집 방법상의 오류와 무응답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문제를 인지하고, 두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는 각 국 간의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총 조사로 이뤄진 나라의 경우, 전체 농가 인구에서 각 부문별로 농업총생산액의 최저 10%의 농가를 제외한 통계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로 이뤄진 나라의 통계와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sup>2)</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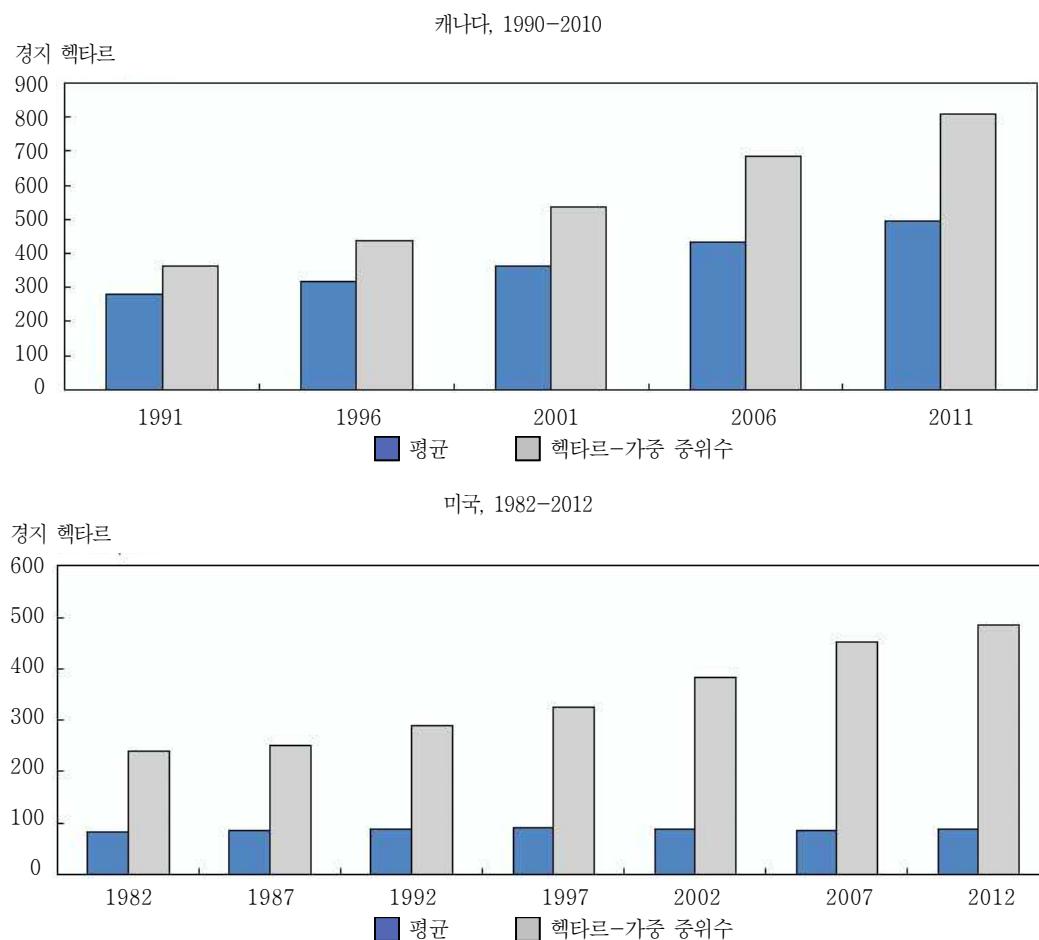
2) 이러한 방법은 물론 통계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원 저자가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농가 규모 분포의 정도가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으며, 농업의 구조적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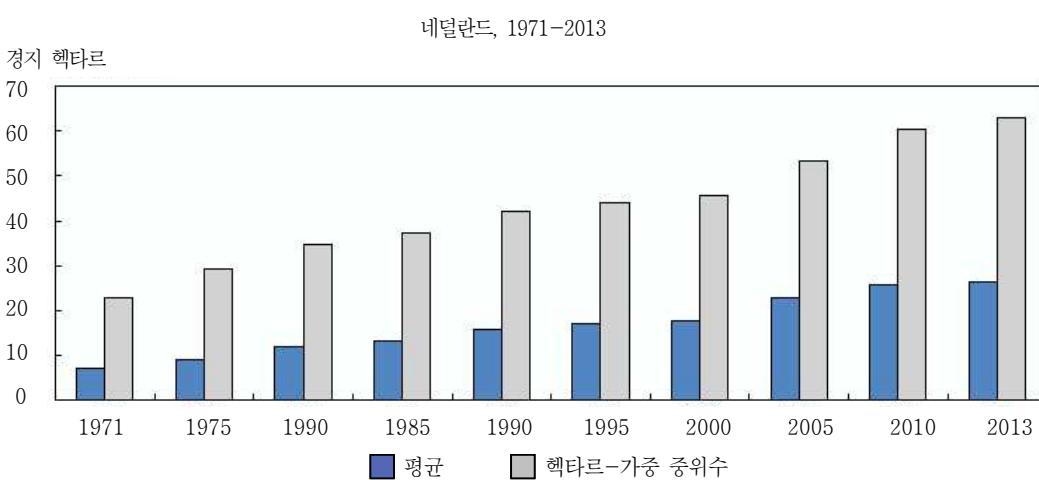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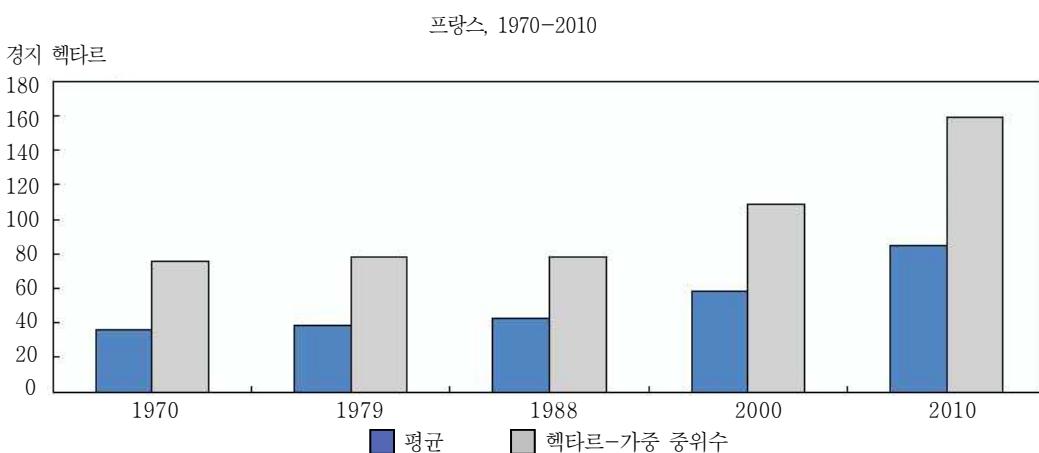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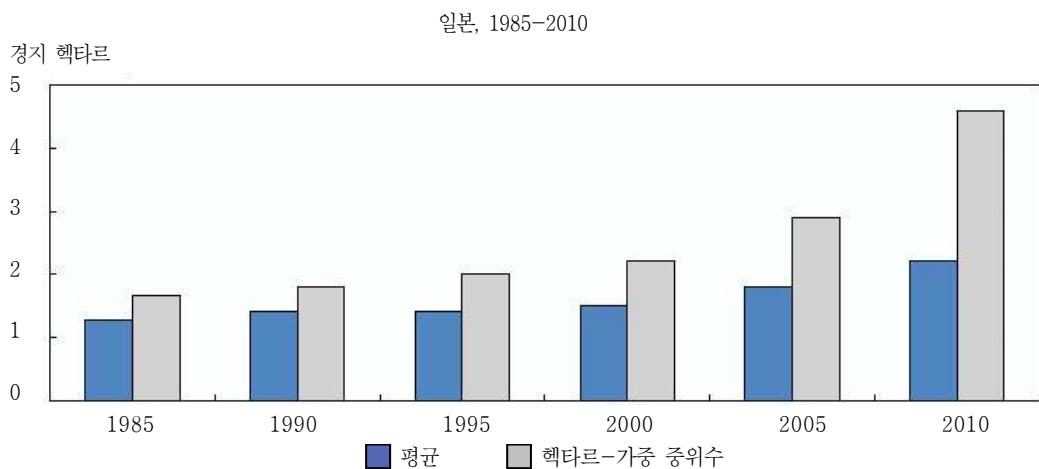
### 3. 국가 간 농가 규모 비교

#### 3.1. 평균 농가 규모 추세

15개국 중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대상으로 �ект아르·가중 중위수를 이용하여 농가 규모 성장속도를 측정하면, 농가 규모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순서이다<그림 4 참조>. 농가 규모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의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추세는 농가 규모의 가중·헥타르 중위 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 농가의 확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10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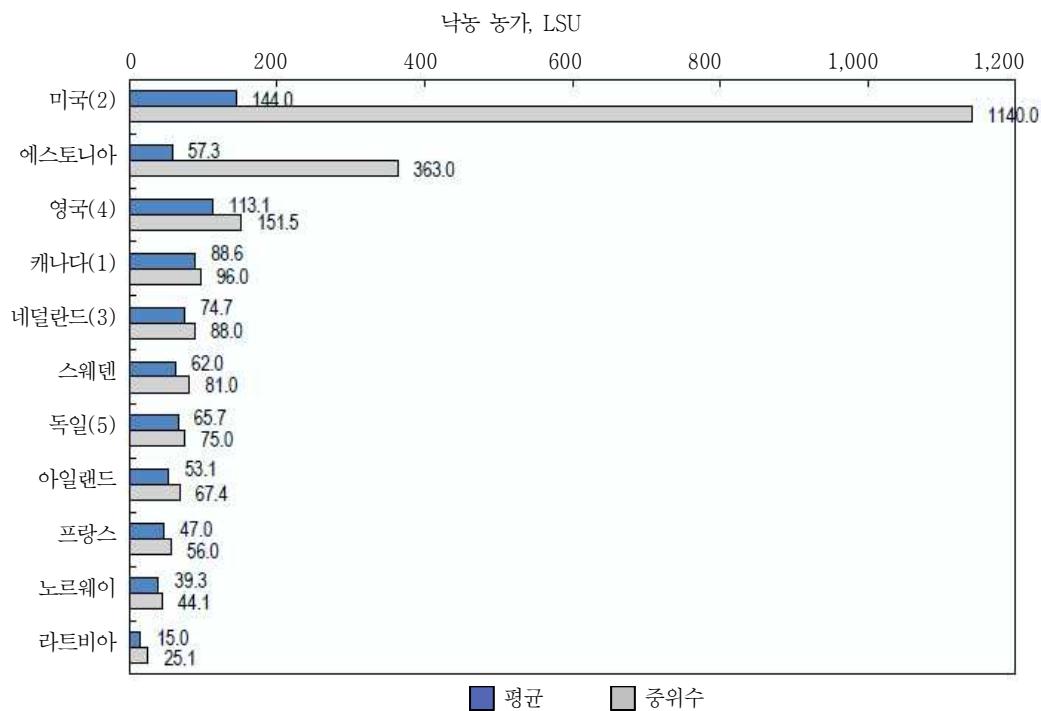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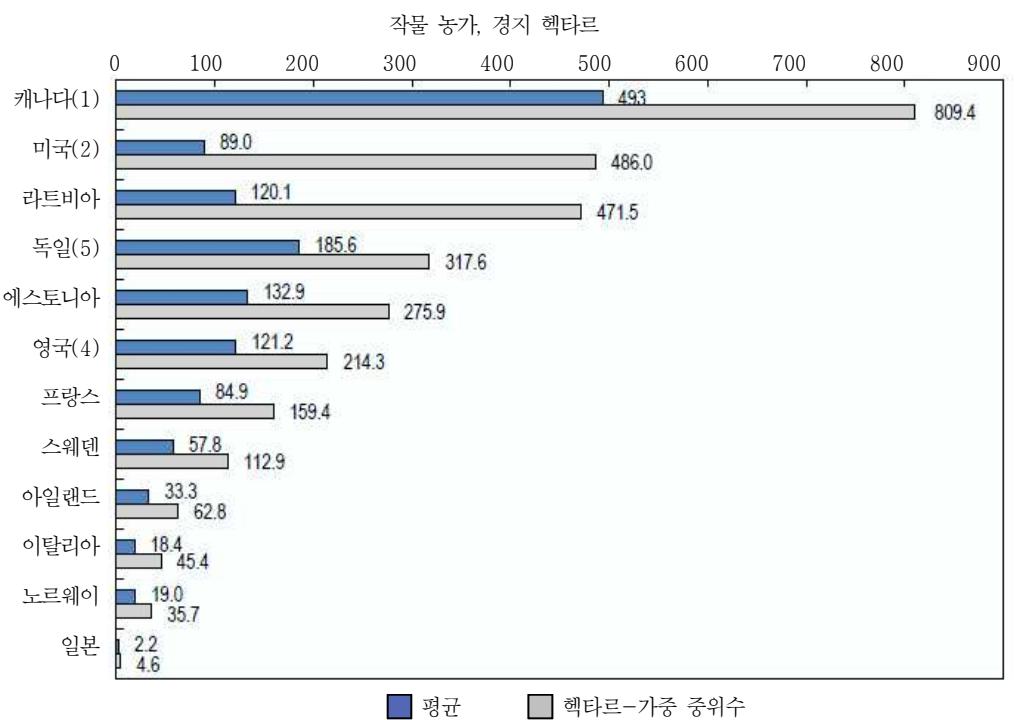
그림 4 5개국 작물 농가 규모 분포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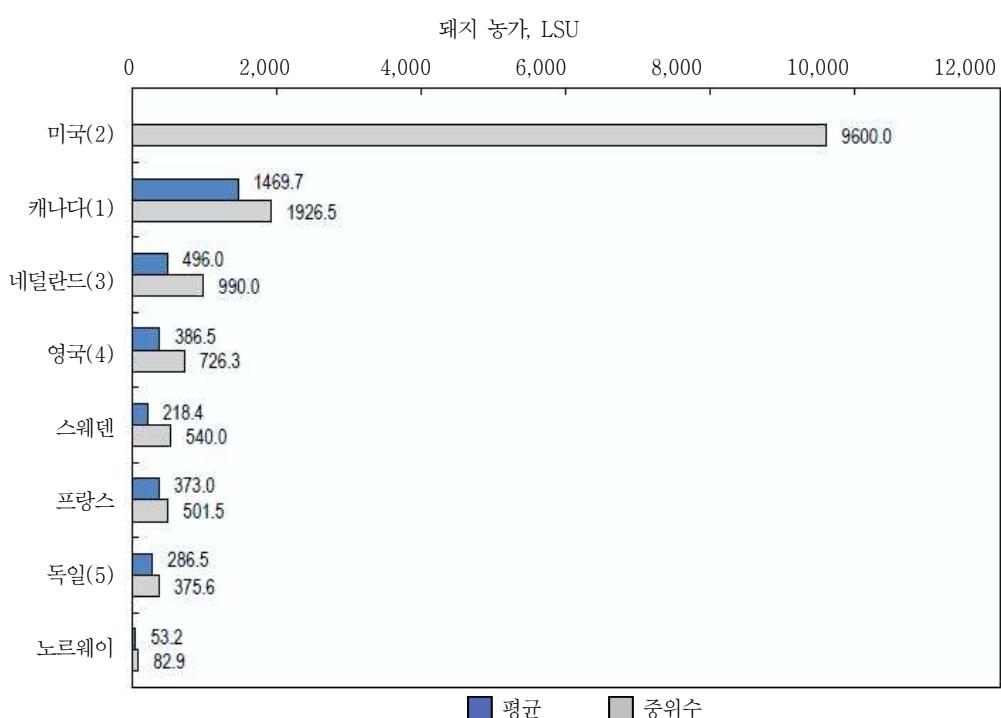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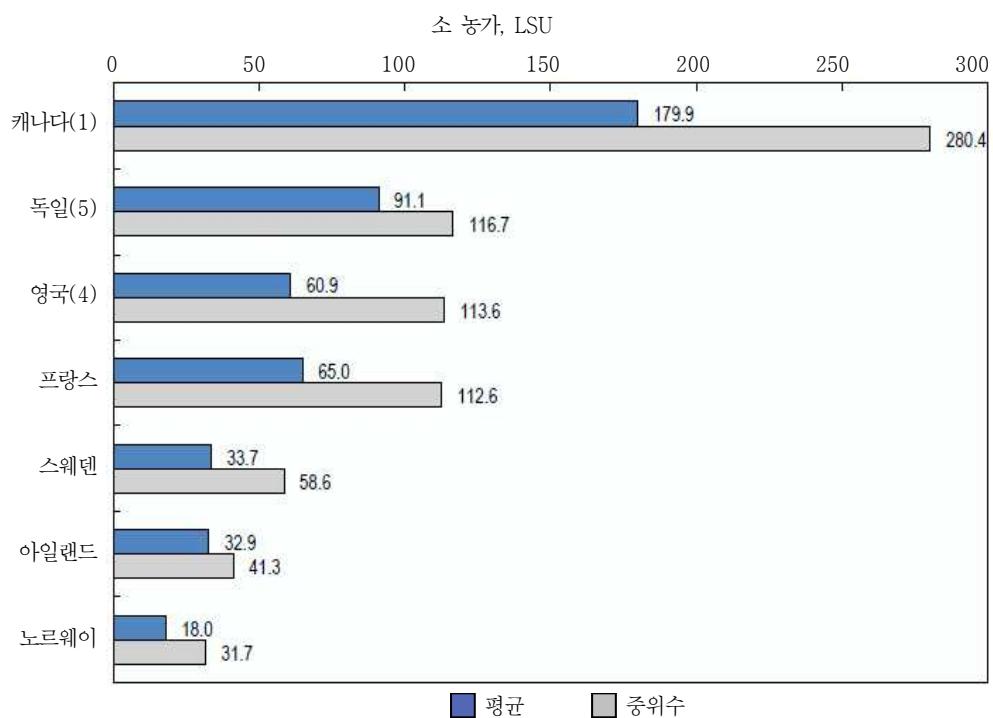




자료:Boukusbava and Kimura, 2016:16–17.

그림 5 각 국의 농가 규모 비교-평균, 헥타르-가중 중위수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31–32.

그러나 헥타르·가중 중위수 성장률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예를 들면, 중위 농가 규모는 2000년 이후로 급속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농업은 최근 10여 년 간 구조적 변화를 급격히 겪었음을 의미한다.

이 외의 다른 OECD 나라의 평균 농가 규모 성장률을 보면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에서 미국 낙농가는 지난 2세기 동안 규모가 확장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위수가 평균값보다 3.5배 더 빨리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볼 때 대규모 낙농 시스템의 확장이 주효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형태별로 살펴보면, 돼지농가의 농가 규모 평균 성장률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농가형태별 농가 규모 평균 성장률, 1995–2010

국가	평균 성장률, 1995–2010, 년간 %							
	작물농가, 경지 헥타르		낙농농가, LSU		소농가, LSU		돼지농가, LSU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b>총조사 기준</b>								
캐나다 <sup>2</sup>	2.98	4.21	3.36	3.78	3.10	3.87	7.53	7.24
미국 <sup>3</sup>	-0.15	2.74	4.17	15.01				10.55
일본	3.06	5.71						
한국 <sup>4</sup>	4.03	5.11						
프랑스 <sup>5</sup>	3.52	3.64	3.39	3.18	3.38	3.04	3.50	3.39
독일 <sup>6</sup>	4.21	3.84	3.24	3.04	2.00	1.67	3.19	1.10
네덜란드 <sup>7</sup>			3.35	2.82			6.93	6.87
노르웨이	4.50	3.45	3.65	3.65	6.95	7.40	13.22	13.66
영국 <sup>8</sup>	0.81	0.61	2.66	3.16	2.71	3.32	0.40	0.00
<b>표본조사 기준</b>								
에스토니아 <sup>9</sup>	8.75	14.44	2.06	3.31				
아일랜드	2.02	2.57	3.01	3.06	1.44	1.07		
이탈리아 <sup>10</sup>	-1.81	6.85						
라트비아 <sup>10</sup>	2.95	7.98	1.92	5.73				
스웨덴	-0.16	1.73	5.67	5.96	4.07	4.80	10.88	7.90

자료:Boukusbeva and Kimura, 2016:21

---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념할 점은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 농가 인구의 정의는 EU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EU에 비해 캐나다, 미국, 일본의 농가 인구에는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값으로 농가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농가 인구의 최저 농가 규모 기준선을 달리 적용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전체 농가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농가 규모의 분산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로 이어진다.

### 3.2. 농가 규모 분산 추세

앞서 언급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면, 분석대상인 15개국에서의 지니 계수는 지난 2세기 동안 증가해 왔다. 즉, 농가 규모 분포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농가의 양극화 구조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농가 규모 분포의 각 분위에서 평균 성장률을 보면, 농가 규모의 중위수에서 는 괄목할만한 상승이 있었으나 소규모 농가의 평균 규모는 몇몇 나라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구조에서 양극화가 진행 또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나라 또는 농업의 각 부문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대규모 농가의 규모 증가와 같이 발생하였다.

“사라진 중간 농가(disappearing middle)”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대규모 전업농의 규모 확대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업 외 일자리(off-farm employment)를 찾기 위해 농업 규모를 작게 유지하거나, 규모를 다소 줄이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Koester 1999).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유기 작물 생산 농가의 증가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Brock and Barha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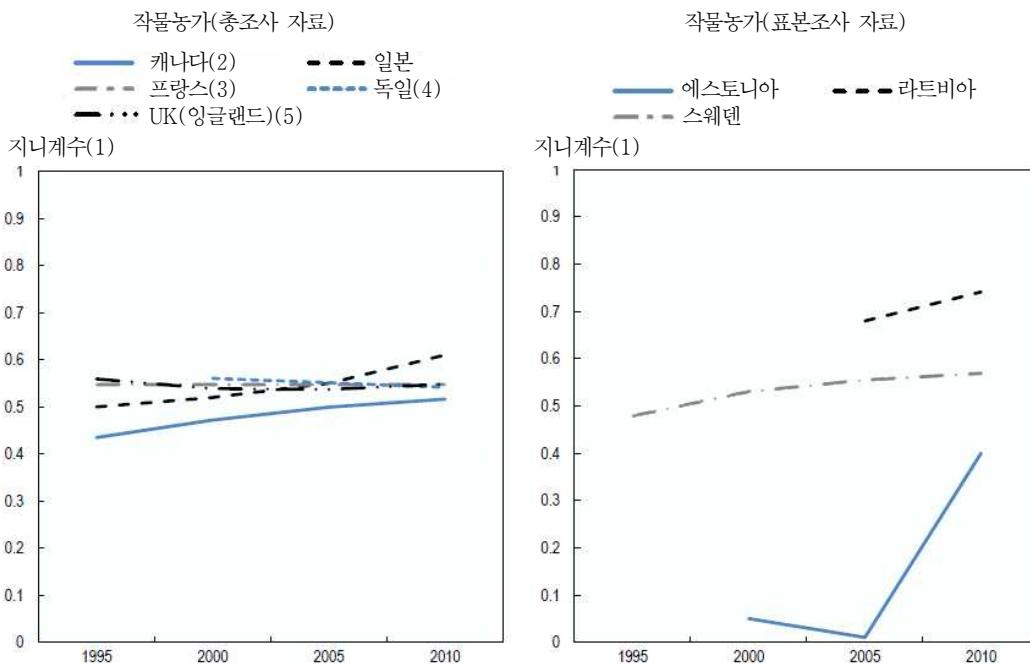
이렇게 농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은 진행 또는 심화되고 있지만, 앞 절에서 설명한 농가 규모의 평균과 중위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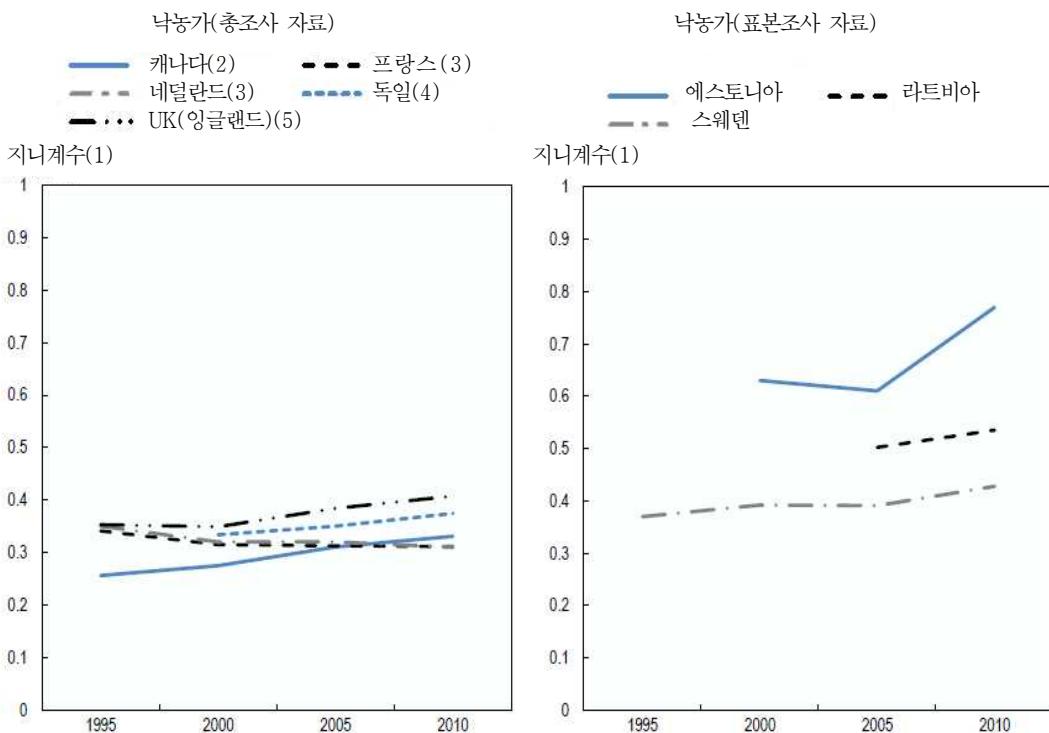
<그림 6>은 작물과 낙농농가의 지니 계수 값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 나타난 지니 계수를 추세를 보면, 캐나다, 일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웨덴의 작물 농가 규모 분포가 더욱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농 농가의 경우,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에서 농가 규모 분포 분산이 더욱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니 계수를 통해 프랑스의 낙농 농가 규모 분산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양극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프랑스의 우유 쿼터 관리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우유 쿼터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이는 토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부처에서 그 양을 정하게 된다. 또한 쿼터는 짧은 낙농가, 소규모 농가에게 먼저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낙농가 규모 확대를 자연스레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6>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와 같은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에서 농가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형태별 비교를 하면, 낙농가 보다 작물 농가의 규모 분포 분산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낙농가가 작물 농가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균등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주요 OECD 국가의 지니 계수 추세, 1995–2010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22.

### 3. 맷음말

본고에서는 14개국의 농가 규모 분포 측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각 국에서의 농가 규모 분포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규모 측정에 사용된 평균, 중위수와 더불어 헥타르-기준 중위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헥타르-기준 중위수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지니 계수를 소개하였다.

헥타르-기준 중위수와 지니 계수를 통해 14개국 각 국의 농가 규모 분포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지난 2세기 동안 농가 규모 분포의 불균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 구조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대규모 농가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구조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농가 규모 확대를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 요인,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혁신, 그 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들이 함께 농업 구조 변화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니 계수 추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 농가 규모 분포의 불균등은 높은 수준의 정책개입-예를 들어 EU국가의 낙농 산업 정책 등-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업 구조 변화는 단순히 대규모 농가의 규모 확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농업 구조 변화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또한 각 국이 갖고 있는 생산 시스템, 기술력 변화, 제도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더불어 대규모 농가의 규모 확대로 농업구조 변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유념할 점은 대규모 농가만 결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중소농가도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중소농가는 유기농산물, 지역/전통 농산물 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농업 외 일자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소규모 농업의 규모를 유지 또는 감소하면서 농업에 여전히 종사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업 규모 분포 측정 방법 — 헥타르-기준 중위수와 지니 계수 — 으로 각 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평균과 중위수만으로 나타낼 수 없었던 농가 규모의 분포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고려해 볼 만한 측정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농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점이다. 즉, 농가 규모의 불균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에 있어 규모의 양적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대규모 농가만이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수의 소규모의 농가도 농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의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불균등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소개된 프랑스의 낙농가에 대한 정책들,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틈새시장 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이들에게 지역 사회 내에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농업 외 일자리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농업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Bojusheva, R. and S. Kimura, 2016.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94.
- Brock, C. and B. Barham. 2009. Renew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Renew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24(1): 25-37
- Koester, U. 1999. The Evolving Farm Structure in East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World Bank European Union Accession Workshop in the Rural Sector.
- Lund, P. and R. Price. 1998. The Measurement of Average Farm Siz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49, pp.100-110
- MacDonald, J.M., P. Korb and R.A, Hoppe. 2013. Farm Size and the Organization of U.S. Crop Farming. ERR-15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